

# 청소년 선플활동 참여경험과 공동체역량 간의 관계 분석

민병철\*, 이찬성\*\*, 오경숙\*\*\*

\*선플운동본부

\*\*선플운동본부

\*\*\*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e-mail:geb1568@kookje.ac.kr

##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Sunfull Activity Participation

## Experience and Community Competencies of the Teenager

Byoung-Chul Min\*, Chan-sung Yi\*\*, Kyeong-Sook Oh\*\*\*

\*Distinguished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Sunfull Foundati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okje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플활동 참여 경험과 공동체 역량 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플운동본부’의 도움을 받아 선플활동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304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계수, 빈도와 백분율,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선플참여효과(4.02점)와 공동체 역량(3.83점)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들은 선플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참여효과와 공동체 역량이 높았으며, 특히 41회 이상 참여자가 15회 이하 참여자에 비해 참여효과와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선플활동 참여효과와 공동체 역량은 깊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결과는 공동체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선플활동 참여에 대한 참여의욕과 참여만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다.

### 1. 서론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었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친사회적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연스런 경험이 부족한 현실에서는[2] 그 무엇보다 민주시민으로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협동하는 성숙한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입시와 경쟁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일상을 학교 정규수업과 학원의 보충수업으로 보낸다. 이러한 청소년의 생활은 교과 이외의 활동에는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적 풍토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익히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게 되었다[1].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의 공동체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형식의 참여 활동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아리 형식의 참여 활동은 구성원 간에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흥미와 재능, 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김선숙과 안재진(2012)[3]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높게 나타났으며 봉사기간과 또래 애착, 자존감 등이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려는 참여의욕과 참

특히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더불어 인성 실천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 2015 교육과정 개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인 심미적 감성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갈등관리역량 등을 모두 포함시켜 청소년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여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민병철 등(2018)[4]은 청소년의 선플봉사활동 지속성과 만족성이 이타적동기와 사회적 책임 등 공동체 의식과 깊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비자발적이거나 타인의 권유로 참여한 청소년에 비해 지속성과 공동체 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청소년 선플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개인·공동체를 위한 인성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선플활동 참여효과와 인성역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 선플활동 경험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선플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선플 참여효과 인식 및 공동체 역량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선플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선플 참여효과 인식 및 공동체 역량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선플 참여효과 인식과 공동체 역량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선플달기본부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청소년들로 청소년 선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교 304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학생	187	61.5	선플 경험	15회이하	101	33.2
	여학생	117	38.5		16회-40회	99	32.6
학년	중학생	56	18.4		41회이상	104	34.2
	고등학생	248	81.6		전체	304	100.0
전체		304	100.0				

### 2.2 연구도구

#### 2.1.1 청소년 선플활동 참여효과

청소년 선플활동 참여효과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으로는 청소년 ‘선플활동 참여의욕’과 청소년 ‘선플활동 참여만족도’ 등 총 2개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02이다.

#### 2.1.2 공동체 역량

청소년의 공동체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재용(2000)[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총12문항으로 시민성 6문항과 도덕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시민성.856, 도덕성이 .838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93이다.

### 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제작된 설문지를 ‘선플달기운동본부’의 협조를 받아 선플달기 운동본부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선플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총 309이 참여를 하였으나, 이 중 대학생의 설문 5부를 제외한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ver 21.0)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산분석(ANOVA, Duncan),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해석

### 3.1 청소년의 선플활동경험 및 공동체 역량 수준

[표 2] 청소년의 선플활동 경험 및 공동체 역량 수준

(N=304)

변인	M	SD	최솟값	최댓값
참여의욕	3.87	1.01	1.00	5.00
참여만족	4.17	.89	1.00	5.00
참여효과 전체	4.02	.87	1.00	5.00

[표 2]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선플활동 참여효과 평균은 4.02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참여만족은 4.17로 매우 높았고, 참여의욕 또한 평균 3.87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3] 청소년의 선플활동 경험 및 공동체 역량 수준

(N=304)

변인	M	SD	최솟값	최댓값
시민성	4.01	.71	1.00	5.00
도덕성	3.66	.77	1.00	5.00
공동체전체	3.83	.67	1.00	5.00

[표 3]과 같이 선플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은 평균 3.83으로 높았다. 특히 시민성이 4.01로 높은 수준이었고, 도덕성 또한 3.66으로 높았다. 즉, 선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만족과 참여의욕이 높아 참여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공동체 역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2 청소년 선프경험에 따른 선프 참여효과 인식과 공동체 역량 차이

[표 4] 청소년의 선프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참여효과 인식 차이 (N=304)

변인	15회이하 n=101 a		16회-40회 n=99 b		41회이상 n=104 c		F	Duncan
	M	SD	M	SD	M	SD		
참여의욕	3.63	1.06	3.93	1.03	4.04	.92	4.40*	a<b,c
참여만족	4.01	.83	4.15	.98	4.34	.82	3.56*	a<c
참여효과	3.82	.87	4.04	.93	4.19	.78	4.65**	a<c

\* $p < .05$ , \*\* $p < .01$ .

[표 4]와 같이 선프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참여효과는 선프활동 참여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4.65$ ,  $p < .01$ ). 선프활동 참여 경험이 높을수록 참여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Duncan 검증결과, 선프활동의 참여효과는 41회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15회 이하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참여효과가 높았다. 참여효과의 하위변인인 참여의욕은 선프활동 참여 경험이 41회 이상인 학생과 16회-40회 학생들이 15회 이하인 학생에 비해 참여의욕이 높았으며 ( $F=4.40$ ,  $p < .05$ ), 참여만족은 41회 이상 참여한 학생들이 15회 이하 참여한 학생들에 비해 참여만족이 높았다( $F=3.56$ ,  $p < .05$ ). 즉, 선프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참여의욕과 참여만족이 높고 참여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청소년의 선프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공동체 역량 차이 (N=304)

변인	15회이하 n=101 a		16회-40회 n=99 b		41회이상 n=104 c		F	Duncan
	M	SD	M	SD	M	SD		
시민성	3.85	.74	4.08	.67	4.09	.70	3.68*	a<b,c
도덕성	3.55	.77	3.68	.80	3.75	.74	1.82	
공동체	3.70	.68	3.88	.67	3.92	.66	3.15*	a<c

\* $p < .05$ .

[표 5]와 같이 선프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공동체 역량은 선프 참여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15$ ,  $p < .05$ ). 선프활동 참여 경험이 높을수록 공동체 역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Duncan 검증결과, 공동체 역량 차이는 41회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15회 이하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참여효과가 높았다. 공동체 역량의 하위변인인 시민성은 선프활동 참여 경험이 41회 이상인 학생과 16회-40회

학생들이 15회 이하인 학생에 비해 시민성이 높았다( $F=3.68$ ,  $p < .05$ ). 반면, 도덕성은 선프활동 참여 경험이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긴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선프활동 참여 경험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동체 역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3.3 청소년 선프활동 참여효과 인식과 공동체 역량과의 관계

[표 6] 청소년 선프활동 참여효과 인식과 공동체역량과의 관계 (N=304)

변인	시민성	도덕성	공동체역량 전체
참여의욕	.442***	.405***	.468***
참여만족도	.313***	.322***	.352***
참여효과	.417***	.400***	.452***

\*\*\* $p < .001$ .

<표 6>에 의하면,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313~.468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선프 참여효과인식과 공동체 역량 전체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선프활동 참여효과는 공동체역량과 정적상관( $r=.452$ ,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역량의 하위변인 별로 청소년 선프활동 참여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여효과와 시민성( $r=.417$ ,  $p < .001$ ), 도덕성( $r=.400$ ,  $p < .001$ )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선프활동에 대한 참여 효과가 높을수록 공동체 역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선프참여효과(4.02점)와 공동체 역량(3.83점)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3.41점, 공동체 의식 점수가 3.19점을 보인 김희진(2016)[6]의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본 연구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 연구대상들은 자발적 선프 활동을 실행한 선프동아리 학생들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둘째, 청소년들은 선프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참여효과와 공동체 역량이 높았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희진(2016)[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인 학습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6].

셋째, 청소년의 선플 활동 참여효과 인식과 공동체 역량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즉, 참여효과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동체 역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높게 나타났으며, 봉사기간 등이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선숙, 안재진(2012)[3]과 민병철 등(2018)[4]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공동체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선플활동 참여에 대한 참여의욕과 참여만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에 청소년 선플활동 참여효과의 향상을 통한 공동체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의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304명의 선플활동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일반 평균화가 되어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 역량의 영향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공동체 역량 척도는 도덕성과 시민성에 관련된 문항만을 공동체 역량으로 측정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류동훈, 이승재, “현장 중심의 청소년 활동 총론”, 서울: 양서원, 2005년.
- [2] 김남수, “장애 비장애학생 통합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중등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연구회, 제 1권 1호, pp. 45-52, 1월, 2014년.
- [3] 김선숙·안재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pp. 339-363. 2012년.
- [4] 민병철, 이찬성, 윤상용, 박근일, 오경숙, “선플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 논문집, pp374-376. 2018.
- [5] 박재용, “청소년 수련활동과 인성역량 간의 관계 분석”, 중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6] 김희진,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년.